

2024 문화계 결산 <1> 미술

광주비엔날레 30주년·‘아트:광주:24’ 등 현대미술 풍성

올해 지역 문화계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졌다. 다사다산했던 2024년 문화예술계 이모 저모를 미술, 공연, 문학 3회에 걸쳐 결산한다.

올해 문화계 최대 관심사는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개최였다. 세계적인 미술축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9월 6일-12월 1일)에는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 72명 작가가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비엔날레는 전환의 시대 지구상 공간의 조직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 등을 담론으로 제시했다. 또한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양림동 일대, 즉 양림문화센터를 비롯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 미술관, 양림살롱,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이 현대미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관객들은 도심 곳곳에서 현대미술의 향연을 즐길 수 있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파빌리온 전시였으며 사상 첫 '광주 정신'과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광주관'도 개관했다.

그러나 이번 비엔날레는 신선한 기획과 프로그램 관점에서 볼 때 30주년 명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비엔날레로 나름의 위상을 다져왔지만 국내에서도 부산비엔날레 등 경쟁지역이 출현하는 등 관람객을 나눠 갖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트렌드와 실험성을 가미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자칫 대중들의 발길이 외면한다면 득보다 실

광주비엔날레 도심 곳곳이 전시장 '아트:광주:24' 미술축제로 큰 호응 오지호·천경자 화백 특별전 화제 이근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도

이 크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올해 호남권 최대 미술시장인 '아트:광주:24'도 지난 10월(10일-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졌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 축제'를 주제로 이탈리아 등 해외 10곳을 포함 갤러리 96곳이 참여했으며 106개 부스가 개설했다. 광주 문화재단이 주관해 올해는 2만 5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생애 첫 작품을 구입한 관람객도 늘면서 미술문화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판매 실적 면에서 키아프나 부산아트페어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 판매 작품이 50만~200만 원짜리 소품인 데다 유명 갤러리 참여가 저조했다. 올해는 정확한 판매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적이 부진하다면 아트페어의 가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인 지난 9월 7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미술축제를 즐겼다.

유형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사무국의 상시기구화로 전담 인력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는 남도가 낳은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잇따라 열려 화제가 됐다. 한국적 인상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지호 화백(1905~1982), 환상적인 화풍으로 감동을 선사했던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전시가 바로 그것. 두 화백은 각각 화순, 고흥 출신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다르지만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한 화가들이다.

한국 1세대 서양화가 오지호 전시는 내년 3월 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작 가운데는 오지호 화백의 동경예술대 시절의 졸업작품, 새로 공개되는 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는 천경자 화백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천 화백의 고향 고흥에서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오는 31일까지)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아카이브 자

료 중에는 친필편지, 미공개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천경자의 예술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수미 타 김) 미국 몽고메리대학 미술과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화제가 됐다. 미국에서 들어와 고흥에 머물며 전시를 준비했던 김 교수는 "이번 특별전은 고흥군과 전시 팀 모두의 열정이 모아진 결과"라며 "천경자라는 화가의 미술사적 중요성을 주목하고 그의 삶을 알아가는 친밀하면서도 차별적인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현대미술의 천재화가 피카소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근희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이 개최된 것. 전시는 고(故) 이근희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피카소 도자 112점 중 107점을 선보이는 자리였으며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이어 두 번째 순회 전시였다.

이근희컬렉션 가운데 피카소의 도예 작품이 지역

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근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천재작가의 도예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무등산과 영산강이 지나는 인문학적, 예술적 의미와 사유를 아우르는 '무등에서 영산으로'를 개최했다. 무등산과 영산강을 소재로 작업한 작가 6명을 비롯해 영산강을 담은 사진가 6명, 무등공부방 아카이브 작가 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1000호에 이르는 '어머니의 강-꿈어울'은 박선제, 김남술, 김두석 작가 3인의 협업 작품으로, 대작이 완성된 데는 김건형 남악하나메디컬센터 원장의 도움이 컸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여름 벨기에 앤트워프에 거주하며 작업하는 리너스 반 데 벨데의 국제 전시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리너스 반 데 벨데는 촬영, 수집한 사진의 이미지나 역사적 인물의 기록 등 사료를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내년 3월 2일까지 진행되는 오지호 특별전 모습.



'민족민주화 대성회'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여'

이기원 초대전, 내년 1월 3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비상계엄 사태로 시국이 어수선한 요즘 시민들은 80년 5·18의 약몽을 떠올린다. 계엄군이 총칼로 광주 시민을 살상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렸던 참혹의 시간들을 생각한다.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에게는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시민들이 작금에 벌여졌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광장으로 나와 비상계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련자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민족민주화 대성회'였다. 당시 광주의 모습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강렬한 모습으로 각인돼 있다.

80년 5월 민족민주화 대성회의 역사적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열리는 이기원 작가의 '민족민주화

대성회- 박관현 동지여'전은 오늘의 비상사태와 맞물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작품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했던 진실의 현장이 캔버스, 찢겨진 나무합판, 종이 상자 위에 실험적이면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한 김남주 시인이 박관현 열사에게 바친 현상시 '한 사람의 죽음으로'를, 활자가 아닌 목상의 흑백이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 작가는 조소와 회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민중미술 작가로 활동해왔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아픔을 조형 예술로 구현해왔으며, 80년 5월을 대중적인 오브제와 색채로 표현해 몰입과 공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80년 5월 운몽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광주시민들과 박관현 열사의 외침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라며 "작금의 비상계엄사태와 맞물려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 파사드 통해 건네는 희망 메시지

희망찬 새해가 떠오르는 모습 등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내년 1월 12일까지(매일 오후 6~8시) 미디어 파사드 작품 '밝아오는 새해 인사'를 상영한다.

예술극장 빅도어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총 2분 30초)이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다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로 34m, 세로 14m) 작품으로 ACC에서 올해 진행한 '콘텐츠 발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 작품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융·복합 및 가상 콘텐츠 창작과 기획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ACC 창작연장 참여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140여 명이 참여했다.

영상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온기를 전해주는 고양이, ACC를 채운 예술가들의 모습 등을 담았다. 예술극장 빅도어는 블랙박스형



ACC 예술극장 빅도어 미디어 파사드.

(ACC 제공)

공연장인 극장1과 야외무대를 연결하는 개폐 가능한 문으로 ACC는 최근 빅도어를 크리스마스 조명과 조형물로 장식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 '밝아오는 새해 인사'를 통해

'밝아오는 새해 인사' 상영

내년 1월 12일까지 ACC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느꼈으면 한다"며 "ACC는 창작자, 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화요일에 만나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카페뮤지엄CM '2025년 우리의 사계', 내년 1월 7·21일

아스트라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20세기 후반 아르헨티나 탱고에 혁신을 가져온 곡이다.

비발디 '사계'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그가 사랑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절을 탱고 리듬으로 표현했다.

카페뮤지엄CM이 '2025년 우리의 사계'라는 주제로 제37~38회 화요일클래식을 내년 1월 7일, 21일 오후 8시에 연다. 매주 화요일마다 조분한 공연장에서 정통 클래식을 만난다는 취지에서 진행해 온 기획 공연이다.

밝고 활기찬 리듬으로 시작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봄'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여름'은 강렬하

고 열정적인 탱고 리듬이 주를 이루며, 도시의 무더위를 리드미컬한 악상 변화로 표현한다.

서정적이면서 감성적인 '가을', 탱고 특유의 긴장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겨울'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예고와 호신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 외래교수, 전남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는 조혜원 이 피아노 연주를 맡는다. 조 씨는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부르크너 주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Marco portitnin 국제피아노콩쿠르 등에서 3위(1·2위 없는) 입상했다.

바이올린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도연이, 첼로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



피아니스트 조혜원

(카페뮤지엄 CM 제공)

관람료 5000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